

[7급 공채 예시문제]

문 1. 다음 (가)에 제시된 <작성 원칙>에 따라 (나)의 <A시 보도자료>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7급 공채 예시문제 1번]

(가) <작성 원칙>

- 보도자료의 제목 및 부제는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 첫 단락인 ‘리드’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의 핵심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 제목과 부제에서 드러내고 있는 핵심 정보를 본문에서 빠짐없이 제시해야 한다.
- 불필요한 잉여 정보를 포함하거나 동일 정보를 필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 정보 전개에 필요한 표, 그래프, 그림 등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나) <A시 보도자료>

㉠ 봄철 불청객 ‘황사’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 대응 체계 강화와 시민 행동 요령 안내 등 철저한 대비로 황사 피해 최소화 -
㉡ A시는 매년 봄철(3 ~ 5월)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A시는 황사 대응 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시민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매년 봄철이면 반갑지 않은 손님인 황사가 찾아온다. 황사는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A시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황사 관측일수는 6.1일이며, 이 중 5.1일(83%)이 봄철(3 ~ 5월)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상청의 기상 전망에 따르면 A시의 황사 발생 일수는 4월에는 평년(1.9일)과 비슷하겠으나, 5월에는 평년(2.5일)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 최근 중국 북부지역의 가뭄으로 평년보다 더 강한 황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A시에서는 황사 발생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기후 상황 전파, 도로변과 대규모 공사장물 뿌리기, 진공청소차를 활용한 청소 등 체계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황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 ① ㉠을 ‘불청객 황사, 봄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입니다’로 수정한다.
- ② ㉡은 아래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③ ㉢에 최근 30년간 한국의 황사 발생 관측일수를 도표로 제공한다.
- ④ ㉣에 이어 중국 북부지역 가뭄 원인과 중국 정부의 대처 방안을 추가한다.
- ⑤ ㉤에 시민들이 황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동 요령과 그 안내 계획을 추가한다.

- 1. 문제 유형
- 2. 문제 해결의 실마리

문 2.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7급 공채 예시문제 2번]

정답 : ②

갑: 2019년 7월 17일 학술연구자정보망에서 학술연구자 A의 기본 정보는 조회할 수 있는데, A의 연구 업적 정보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을: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자정보망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추가로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민원인은 학술연구자의 연구 업적 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요. 또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술연구자의 업적 정보의 집적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는 연구 업적 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갑: 학술연구자가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추가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조회 화면에 무슨 문구가 표시되나요?

을: 조회 화면에 “해당 연구자가 상기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해당 연구자의 업적 정보의 집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 화면에 “업적 정보 집적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되고요. 해당 민원인께서는 무슨 문구가 표시되었다고 말씀하시나요?

갑: 문구 표시에 대한 말씀은 듣지 못했어요. 아마 문구를 읽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학술연구자의 업적 정보 제공 동의율과 업적 정보 집적률은 현재 얼마만큼 되나요?

을: 2019년 7월 18일 오늘 기준으로 학술연구자의 연구 업적 정보 제공 동의율은 약 92 %입니다. 동의자 대상 업적 정보 집적률은 약 88 %고요. 동의한 학술연구자가 10여만 명에 이르러 자료를 집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2019년 8월 말까지는 정보 집적이 끝날 겁니다.

갑: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민원인에게 라고 답변 드리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 ① 지금은 조회할 수 없지만 2019년 8월 말이 되면 학술연구자 A의 연구 업적 정보가 조회될 것이다
- ② 학술연구자 A가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그의 업적 정보가 현재 집적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 ③ 현재 학술연구자 A는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한 상태지만 그의 업적 정보가 현재 집적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 ④ 지금은 조회할 수 없지만 만일 학술연구자 A가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면 한 달 안에는 그의 연구 업적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⑤ 오늘 다시 학술연구자 A의 연구 업적 정보를 조회한다면 “해당 연구자가 상기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올 것이다

1. 문제 유형

2. 문제 해결의 실마리

문 3. 다음 글의 ㉠ ~ ㉤에서 전체 흐름과 맞지 않는 한 곳을 찾아 수정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7급 공채 예시문제 4번]

정답 : ③

‘거짓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물음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은 거짓말을 하려는 그 사람의 의도일까요? 아니면 그 말이 사실과 일치하는가의 여부일까요? ㉠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두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참이라고 믿는 것을 믿는 대로 말했는데 그 말이 사실은 거짓인 경우, 이를 두고 거짓말을 한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들곤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쩔다 보니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참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내가 참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과 달라 거짓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 거짓말을 만드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라기보다는 사실과의 일치 여부가 되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을 참이라고 믿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이런 거짓말을 ‘결과적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믿는 것과는 반대로 말하는 것을 ‘의도적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결과적 거짓말로 정의할 것인가, 의도적 거짓말로 정의할 것인가는 맥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에 더 잘 맞는 것은 의도적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거짓인 말’과 ‘거짓말’은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연히 참이 된 말’과 ‘참말’도 구별되어야겠지요. 가령, 모든 것을 자신이 믿는 바와는 정반대로 말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만일 이 사람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다.’라고 믿는다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그는 사실과의 일치 여부로 보면 참말을 한 셈이지만,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을 자신의 믿음대로 말한 사람과는 다른 의미에서 참말을 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 그는 우연히 진실을 말했다를 뿐입니다. 이런 사람과, 자신이 믿는 바대로 말하려고 했고 그 결과 진실을 말한 사람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① ㉠을 ‘자신이 참이라고 믿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두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로 수정한다.
- ② ㉡을 ‘거짓말을 만드는 것은 사실과의 일치 여부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되겠지요’로 수정한다.
- ③ ㉢을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참이라고 믿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셈이니까요’로 수정한다.
- ④ ㉤을 ‘이 두 가지 거짓말이 모두 참말과 구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로 수정한다.
- ⑤ ㉥을 ‘그는 의도적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로 수정한다.

1. 문제 유형

2. 문제 해결의 실마리

[5급 유사기출]

문 4. 다음은 농림부 갑 사무관이 작성한 “도농(都農)교류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의 개요이다. 본론 I을 바탕으로 구성한 본론 II의 항목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년 행의시 꿈채형 24번]

- A. 서론

 - 1. 도시와 농촌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
 - 2. 생산적이고 쾌적한 농촌 만들기를 위한 도농교류의 필요성

B. 본론 I: 현재 실시되고 있는 도농교류제도의 문제점

 - 1. 행정적 차원
 - 1) 소규모의 일회성 사업 난립
 - 2)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림부 예산 확보 미비
 - 3) 농림부 내 일원화된 추진체계 미흡
 - 2. 소통적 차원
 - 1)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
 - 2) 농민들의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C. 본론 II: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D. 결론

- ① 지역별 브랜드화 전략을 통한 농촌 이미지 제고
- ② 도농교류사업 추진 건수에 따른 지방 교부금 배정
- ③ 1사1촌(1社1村) 운동과 같은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 ④ 도농교류 책임기관으로서 농림부 농업정책국 산하에 도농교류센터 신설
- ⑤ 농촌 기초지자체와 대도시 자치구의 연계사업을 위한 장기적 정책지원금 확보

- 1. 문제 유형은 무엇인가?
- 2. 해당 문제에 적용된 출제장치는 무엇인가?
-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과정은 무엇인가?

정답 : ②

본론 I 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도농교류제도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론 II 의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는 본론 I 에서 제시하는 도농교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 ① (○) : 2-1)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론 II 의 항목으로 적절하다.
- ② (×) : 도농교류사업 추진 건수에 따라 지방 교부금을 배정하는 경우, 도농교류사업 추진 건수가 증가하면 배정하는 지방 교부금이 증가하게 된다. 현재 본론 I 의 1-1)에서 소규모의 일회성 사업이 난립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의 일회성 사업건수가 현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농교류사업 추진 건수에 따라 지방 교부금을 배정하면 소규모의 일회성 도농교류사업이 난립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본론 II 에 들어갈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③ (○) : 2의 소통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론 II 의 항목으로 적절하다.
- ④ (○) : 1-3) 농림부 내 일원화된 추진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론 II 의 항목으로 적절하다.
- ⑤ (○) : 1-2)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림부 예산 확보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론 II 의 항목으로 적절하다.

정답 : ②

첫 번째 문단에서는 자정에서 새벽 1시까지는 아무도 죽지 않는 세계를 예로 들며, 죽음의 편재성이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우리는 죽음의 편재성을 회피대상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죽음의 공포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스카이다이빙을 즐기는 예를 통해 자정에서 새벽 1시까지는 아무도 죽지 않는 세계와 관련한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지문은 스카이다이빙을 즐기는 예를 통해 죽음의 편재성이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인정하며, 죽음의 편재성이 회피대상이라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빈 칸에 들어갈 내용은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회피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

문 6. 빈칸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7년 5급 공채
가책형 4번]

하늘이 내린 생물을 해치고 없애는 것은 성인(聖人)이
하지 않는 바이다. 하물며 하늘의 도가 어찌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자기의 생명을 기르게 하였겠는가?
『서경』에서는 “천지는 만물의 부모이며, 인간은 만물의 영
장이다. 진실로 총명한 자는 천자가 되고, 천자는 백성의
부모가 된다”라고 하였다. 천지가 이미 만물의 부모라면 천
지 사이에 태어난 것은 모두 천지의 자식이다. 천지와 사
물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으며, 자식 가운데
어리석고 지혜로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람과 동물 사이
에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부모는 자식이
어리석고 불초하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며 오히려 걱정하
거늘, 하물며 해치겠는가?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자기의
생명을 기르는 것은 같은 식구를 죽여서 자기를 기르는 것
이다. 같은 식구를 죽여서 자기를 기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것은 부모의 마음
이 아니다. 사람과 동물이 서로 죽이는 것이 어찌 천지의
뜻이겠는가? 인간과 동물은 이미 천지의 기운을 함께 얻었
으며, 또한 천지의 이치도 함께 얻었고 천지 사이에서 함
께 살아가고 있다. 이미 하나의 같은 기운과 이치를 함께
부여받았는데, 어찌 살아있는 것들을 죽여서 자신의 생명
을 양육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지는 나와
뿌리가 같고, 동물은 나와 한 몸이다”라고 하였고, 유교에
서는 “천지만물을 자기와 하나로 여긴다”고 하면서 이것을
‘인(仁)’이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실천하여 행하는 것이 그 이상과 같아야 비로
소 인의 도를 온전히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유교 경전인 『
논어』는 “공자는 그물질은 하지 않으셨어도 낚시질은 하셨으
며, 화살로 잡든 새는 쏘지 않으셨지만 나는 새는 맞추셨
다”라고 하였고, 『맹자』도 “군자가 푸줏간을 멀리하는 것은
가축이 죽으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

- ① 유교는 『서경』 이래 천지만물을 하나의 가족처럼 여기는
인의 도를 철두철미하게 잘 실천하고 있다.
- ② 유교에서는 공자와 맹자에서부터 살생하지 말라는 불교의
계율을 이미 잘 실천하고 있다.
- ③ 유교의 공자와 맹자는 동물마저 측은히 여기는 대상에 포
함하여 인간처럼 대하였다.
- ④ 유교는 인의 도가 지향하는 이상을 실천하는 데 철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 ⑤ 유교에서 인의 도는 인간과 동물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보고 있다.

- 1. 문제 유형은 무엇인가?
- 2. 해당 문제에 적용된 출제장치는 무엇인가?
-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과정은 무엇인가?

정답 : ④

불교에서는 “천지는 나와 뿌리가 같고, 만물은 나와 한 몸이다”라고 하였고, 유교에서는 “천지만물은 자기와 하나로 여긴다”고 하면서 이것을 ‘인(仁)’이라 부른다. 이를 통해 지문이 여기는 이상은 사람과 만물이 하나의 같은 기운과 이치를 함께 부여받았는데, 살아있는 것들을 죽여서 자신의 생명을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실현하여 행하는 것이 그 이상과 같아야 비로소 인의 도를 온전히 다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논어와 맹자에서 살아있는 것을 죽여 자신의 생명을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인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유교는 인의 도가 지향하는 이상을 실천하는 데 철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진술이 들어가야 한다.

문 7. 다음 글의 ㉠ ~ ㉥에서 전체 흐름과 맞지 않는 한 곳을 찾아 수정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8년 민간경력자 가책형 2번]

상업적 농업이란 전통적인 자급자족 형태의 농업과 달리 ㉠ 판매를 위해 경작하는 농업을 일컫는다. 농업이 상업화된다는 것은 산출할 수 있는 최대의 수익을 얻기 위해 경작이 이루어짐을 뜻한다. 이를 위해 쟁기질, 제초작업 등과 같은 생산 과정의 일부를 인간보다 효율이 높은 기계로 작업하게 되고,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다른 산업 분야처럼 경영상의 이유에 따라 쉽게 고용되고 해고된다. 이처럼 상업적 농업의 도입은 근대 사회의 상업화를 촉진한 측면이 있다.

홉스봄은 18세기 유럽에 상업적 농업이 도입되면서 일어난 몇 가지 변화에 주목했다. 중세 말기 장원의 해체로 인해 지주와 소작인 간의 인간적이었던 관계가 사라진 것처럼, ㉡ 농장주와 농장 노동자의 친밀하고 가까웠던 관계가 상업적 농업의 도입으로 인해 사라졌다. 토지는 삶의 터전이라기보다는 수익의 원천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농장 노동자는 시세대로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존재로 변화하였다. 결국 대량 판매 시장을 위한 ㉢ 대규모 생산이 점점 더 강조되면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또한 상업적 농업의 도입은 중요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왔다. 점차적으로 ㉣ 중간 계급으로의 수렴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저임금 구조의 고착화로 농장주와 농장 노동자 간의 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졌고, 농장 노동자의 처지는 위생과 복지의 양 측면에서 이전보다 더욱 열악해졌다.

나아가 상업화로 인해 그 동안 호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왔던 대상들의 성격이 변화하였는데, 특히 돈과 관련된 것, 즉 재산권이 그러했다. 수익을 얻기 위한 토지 매매가 본격화되면서 ㉤ 재산권은 공유되기보다는 개별화되었다. 이에 따라 이전에 평등주의 가치관이 우세했던 일부 유럽 국가에서조차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 ① ㉠을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 경작하는 농업”으로 고친다.
- ② ㉡을 “농장주와 농장 노동자의 이질적이고 사용 관계에 가까웠던 관계”로 고친다.
- ③ ㉢을 “기술적 전문성이 점점 더 강조되면서 인간이 기계를 대체”로 고친다.
- ④ ㉣을 “계급의 양극화가 나타난 것이다.”로 고친다.
- ⑤ ㉤을 “재산권은 개별화되기보다는 사회 구성원 내에서 공유되었다.”로 고친다.

1. 문제 유형은 무엇인가?
2. 해당 문제에 적용된 출제장치는 무엇인가?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과정은 무엇인가?

정답 : ④

- ① (×) : ‘자급자족’은 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생산하여 충당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필요할 물자를 스스로 생산하여 충당하는 전통적인 농업과 달리 상업적 농업이란 판매를 위해 경작하는 농업을 의미하므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 ② (×) :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중세 말기 장원의 해체로 인해 지주와 소작인 간의 인간적이었던 관계가 사라졌으며, ‘이처럼’이라는 표현을 통해 농장주와 농장 노동자의 관계 역시 인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 ③ (×) : 두 번째 문단 끝에서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토지는 수익의 원천으로 여겨지고, 농장 노동자는 시세대로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존재로 변화하였다. ㉡은 대량 판매 시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 언급되므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 ④ (○) : 세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상업적 농업의 도입으로 인해 농장주와 농장 노동자 간의 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졌고, 농장 노동자의 처지는 위생과 복지의 양 측면에서 이전보다 더욱 열악해지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은 “계급의 양극화가 나타난 것이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 : 마지막 문단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수익을 얻기 위한 토지 매매가 본격화됨으로 인해 평등주의 가치관이 우세했던 일부 유럽 국가에서조차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는 평등주의 가치관이 약화되고 재산권이 공유되기 보다는 개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문 8. 다음 글의 전체 흐름과 맞지 않는 한 곳을 ㉠ ~ ㉥에서 찾아 수정하려고 한다. 알맞게 수정한 것은? [10년 행외시우책형 29번]

노예들이 저항의 깃발을 들고 일어설 때는 그들의 굴종과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이다. 개인의 분노와 원한이 폭발할 때에도 그것이 개인의 행위로 그칠 때에는 개인적 복수극에 그치고 만다. 저항의 본질은 억압하는 자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확산되어 가치를 공유하게 되는 데 있다. 스파르타쿠스가 저항의 깃발을 들어 올렸을 때, 수십만 명의 노예와 농민들이 그 깃발 아래 모여든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공통의 분노, 공통의 원한, 공통의 가치에 있었다.

프로메테우스의 신화에서도 저항의 본질을 엿볼 수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보내주지 않자,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여 ‘하늘의 바퀴’에서 불을 훔쳐 지상으로 내려가서 인간에게 주었다. 프로메테우스의 저항에 격노한 제우스는 인간과 프로메테우스에게 벌을 내렸다. 인간에게는 불행의 씨앗이 들어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보냈고 프로메테우스에게는 쇠줄로 코카서스 산 위에 묶인 채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벌을 내린 것이다.

저항에 나선 사람들이 느끼는 굴종과 인내의 한계는 ㉢시대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스도교의 정신과 의식을 원용하여 권력의 신성화에 성공한 중세의 지배체제는 너무도 견고하여 농민들의 눈물과 원한이 저항의 형태로 폭발하지 못했다. 산업사회의 시민이나 노동자들은 평균적인 안락한 생활이 위협받을 때에만 ‘저항의 광장’으로 나가는 모험을 감행한다. 그들이 바라고 지키려는 것은 ㉣가족, 주택, 자동차, 휴가 따위이다.

저항이 폭발하여 기존의 지배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나 국가를 세우고 나면 그 저항의 힘은 시들어 버린다. 원한에 사무친 민중들의 함성이야말로 저항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저항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권력 쟁탈을 목적으로 한 쿠데타와 같은 적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저항과는 다르다. 권력의 성채 속에서 벌어지는 음모, 암살, 배신은 ㉤이들 민중의 원한과 분노에서 시작된다.

- ① ㉠ - 이러한 극도의 개인적 분노와 원한에 있었다
- ② ㉡ - 독단적 결단에 따라 ‘하늘의 바퀴’에서 불을 훔쳐
- ③ ㉢ - 시대와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 ④ ㉣ - 상류층과 동등한 삶의 질이다
- ⑤ ㉤ - 이들 민중의 원한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 1. 문제 유형은 무엇인가?
- 2. 해당 문제에 적용된 출제장치는 무엇인가?
-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과정은 무엇인가?

정답 : ⑤

- ① (×) : 첫 번째 문단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저항의 본질은 억압하는 자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확산되어 가치를 공유하게 되는 데 있다. 스파르타쿠스가 저항의 깃발을 들어 올렸을 때 수십만 명의 노예와 농민들은 저항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다. 이를 통해 스파르타쿠스와 수십만 명의 노예 그리고 농민들은 억압하는 자에 대한 분노와 원한 및 자치를 공유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 ② (×) : 첫 번째 문단 끝에서 두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프로메테우스의 신화에서도 저항의 본질을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프로메테우스의 신화에서도 억압하는 자에 대한 분노와 원한, 가치의 공유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여 억압하는 자에 대해 저항을 했음을 알 수 있고, ㉡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 ③ (×) :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과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중세의 지배체제에서는 농민들이 저항을 할 수 없었고, 산업사회의 시민이나 노동자들은 평균적인 안락한 생활이 위협받을 때에만 저항을 하였다. 이를 통해 시대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저항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 ④ (×) : 세 번째 문단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산업사회의 시민이나 노동자들은 평균적인 안락한 생활이 위협받을 때에만 ‘저항의 광장’으로 나가는 모험을 감행한다. 이를 통해 그들이 바라고 지키려는 것은 평균적인 안락한 생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 ⑤ (○) : 첫 번째 문단 끝에서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단 세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쿠데타는 저항의 형태를 취하지만 목적은 다르며, 본질에 있어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저항과 다르다. 즉, 쿠데타는 억압하는 자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확산되어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쿠데타는 민중의 원한과 분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이들 민중의 원한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7급 공채 예시문제]

문 9. 다음 글의 ㉠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7급 공채 예시문제 3번]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무직인 갑은 만 3세인 손녀의 돌봄을 위해 ○○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의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갑이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 제95조(회원) ① 본 센터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②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시 소재 직장 재직자이다.
- ③ 회원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별도로 정한다.

그러자 갑은 ○○시가 제정한 다음의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5조(회원) ① 회원은 본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본 센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② 회원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시 소재 직장 재직자
 2.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갑의 민원을 검토한 ○○시는 운영규정과 조례가 불일치를 발견하고 ㉠ 갑과 같은 조건의 사람들도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또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 ① 운영규정 제95조 제1항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를 ‘본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로 개정한다.
- ② 운영규정 제95조 제2항의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을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로 개정한다.
- ③ 조례 제5조 제1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 개정한다.
- ④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개정한다.
- ⑤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를 ‘만 5세 이하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로 개정한다.

정답 : ②

1. 문제 유형

2. 문제 해결의 실마리

[5급 유사기출]

문 10. 다음 <개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할 때, 현황 분석 부분에 들어갈 내용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3년 민간경력자 인책형 15번]

<개요>

I. 서론: 정책 제안 배경

II. 본론: 현황 분석과 정책 방안

1. 현황 분석

○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사용 방법의 복잡성과 그에 대한 설명 부재로 인해 이용자 불만 증가

○ 연말정산 기간 중 세무서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관한 상담 수요 폭증

2. 정책 방안

○ 문제점을 개선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매뉴얼 보급

○ 연말정산 자동 상담 시스템 개발

III. 결론: 예상되는 효과 전망

<보기>

ㄱ. 연말정산 자동 상담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15 %의 이용자 불만 감소 효과가 전망된다.

ㄴ. 연말정산 기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마감 기한이 지나서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람이 전년 대비 15 % 증가하였다.

ㄷ. 연말정산 기간 중 세무서 전체 월 평균 상담 건수는 약 128만 건으로 평상시 11만 건보다 크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관한 문의 전화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 문제 유형은 무엇인가?

2. 해당 문제에 적용된 출제장치는 무엇인가?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과정은 무엇인가?

정답 : ②

- ㄱ (×) : 본론의 현황 분석 두 번째에서는 연말정산 기간 중 세무서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관한 상담 수요가 폭증한다고 언급한다. <보기 ㄱ>은 이 현황에 대한 정책 방안 두 번째 및 예상되는 효과 전망에 대해 언급하므로 현황 분석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ㄴ (×) : 본론의 현황 분석에서는 연말정산 기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마감 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람이 증가하였다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 ㄴ>은 현황 분석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ㄷ (○) : 현황 분석의 두 번째에서는 연말정산 기간 중 세무서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관한 상담 수요가 폭증한다고 언급한다. <보기 ㄷ>은 이 현황에 대해 언급하므로 현황 분석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문 11. 다음 글에 나타난 문화재 복원 지침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05년 견습직원선발 융책형 3번]

- 복원 과정 중 첨가되는 물질은 향후 원재료에 영향을 주지 않고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복원된 부분이 원형과 구별될 수 있도록 형태나 색에 약간의 차이를 두어 흔적을 남겨야 한다.
 - 원형을 존중하여 최소한의 복원 작업만을 시행해야 한다.
 - 처리 대상물의 미술사적, 고고학적 내용 조사, 사전 처리 여부 및 분석, 재료의 구성, 손상 상태와 원인, 처리에 사용된 재료와 방법 및 이유, 처리시 이상 현상이나 특성 등 복원의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 ① 대상물의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하여 복원 여부를 결정한다.
 - ② 복원 담당자는 원형 존중의 취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 ③ 손상되지 않은 부분과 복원된 부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 ④ 향후 재복원에 대비하여 원형과 복원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한다.
 - ⑤ 향후 잘못된 복원을 바로잡거나 재복원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최초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 1. 문제 유형은 무엇인가?
- 2. 해당 문제에 적용된 출제장치는 무엇인가?
-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과정은 무엇인가?

정답 : ①

- ① (×) : 복원 여부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 ~ 네 번째의 문화재 복원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선택지 ①은 제시된 문화재 복원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② (○) : 세 번째 복원 지침에 따르면, 원형을 존중하여 최소한의 복원 작업만을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선택지 ②는 세 번째 복원 지침과 부합한다.
- ③ (○) : 두 번째 복원 지침에 따르면, 복원된 부분이 원형과 구별될 수 있도록 형태나 색에 약간의 차이를 두어 흔적을 남겨야 한다. 따라서 선택지 ③은 두 번째 복원 지침과 부합한다.
- ④ (○) : 네 번째 복원 지침에 따르면, 복원의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따라서 선택지 ④는 네 번째 복원 지침과 부합한다.
- ⑤ (○) : 첫 번째 복원 지침에 따르면, 복원 과정 중 첨가되는 물질은 향후 원재료에 영향을 주지 않고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두 번째 복원 지침에 따르면, 복원된 부분이 원형과 구별될 수 있도록 형태나 색에 약간의 차이를 두어 흔적을 남겨야 한다. 따라서 선택지 ⑤는 첫 번째 복원 지침 및 두 번째 복원 지침과 부합한다.

문 12. 다음 글에 비추어 볼 때, 구들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사례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7년 5급 공채 가책형 29번]

우리 민족은 고유한 주거문화로 바닥 난방 기술인 구들을 발전시켜 왔는데, 구들은 우리 민족에 다양한 영향을 주었다. 우선 오랜 구들 생활은 우리 민족의 인체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태어나면서부터 따뜻한 구들에서 누워 자는 것이 습관이 된 우리 아이들은 사지의 활동량이 적고 발육이 늦어졌다. 구들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은 다른 어떤 민족의 아이들보다 따뜻한 곳에서 안정감을 느꼈으며, 우리 민족은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안하여 발전시켰다.

구들은 농경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생산도구의 제작과 사용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구들에 앉아 오랫동안 활동하는 습관은 하반신보다 상반신의 작업량을 증가시켰고 상반신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정교하게 되었다. 구들 생활에 익숙해진 우리 민족은 방 안에서의 작업뿐만 아니라 농사를 비롯한 야외의 많은 작업에서도 앉아서 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큰 농기구를 이용하여 서서 작업을 하는 서양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다.

구들에서의 생활은 우리의 음식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구들에 앉거나 누우면 엉덩이나 등은 따뜻하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소화계통이 있는 배는 고루 덥혀지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소화과정에 불균형이 발생하는데 우리 민족은 자극적인 음식을 발전시켜 이를 해결하였다. 구들 생활에 맞추어 식생활에 쓰이는 도구들의 크기도 앉아서 팔을 들어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만들어졌다. 밥술의 크기는 아낙네들이 팔을 휙 두르면 어디나 닿을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맷돌도 구들에 앉아 혼자서 돌리기에 맞게 만들어졌다.

- <보 기> ———
- ㄱ. 우리 민족은 아주 다양한 찌개 음식을 발전시켰는데, 찌개 음식은 맵거나 짠 경우가 대부분이다.
 - ㄴ. 호미, 낫 등 우리 민족의 농경도구들은 대부분 팔의 길이보다 짧아 앉아서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 ㄷ. 우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은 연날리거나 팽이치기 등의 놀이를 즐겨했고, 여자아이들은 공기놀이나 널뛰기 등의 놀이를 즐겨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 1. 문제 유형은 무엇인가?
- 2. 해당 문제에 적용된 출제장치는 무엇인가?
-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과정은 무엇인가?

정답 : ③

지문은 구들 생활이 우리 민족의 인체의 변화, 생산도구의 제작과 사용, 음식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인체의 변화와 관련하여 구들에서 생활한 우리 아이들은 사지의 활동량이 적고 발육이 늦어졌다. 생산도구의 제작과 사용과 관련하여 구들에 앉아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습관은 상반신의 움직임이 하반신보다 상대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었고, 방 안뿐만 아니라 야외의 많은 작업에서도 앉아서 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음식문화의 경우 구들 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소화과정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자극적인 음식을 발전시키고 식생활에 쓰이는 도구들의 크기도 앉아서 팔을 들어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만들어졌다.

ㄱ (○) : 마지막 문단 두 번째 문장부터 세 번째 문장까지가 근거이다. 구들 생활은 소화과정의 불균형을 발생시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족은 자극적인 음식을 발전시켰다. 우리 민족이 대부분 맵거나 짭 맛의 다양한 찌개 음식을 발전시킨 것은 구들 생활로 인해 음식 문화가 받게 된 영향에 해당한다.

ㄴ (○) :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구들 생활이 익숙해짐에 따라 우리 민족은 농사를 지을 때 앉아서 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큰 농기구를 이용하여 서서 작업을 하는 서양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다고 지문에 언급되어 있다. 우리 민족의 농경도구들이 대부분 팔의 길이보다 짧아 앉아서 사용하기에 편리했다는 것은 구들로 인해 농경도구의 제작과 사용이 받게 된 영향에 해당한다.

ㄷ (×) : 우리 민족의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즐겨한 놀이가 구분되었던 것이 구들에 의한 영향인지는 지문을 통해 알 수 없다.